



드라마로 온 '수상한 그녀'

KBS 수목드라마 18일 첫 방송

70대 할머니가 20대가 돼 가수 도전
2014년 영화 '수상한 그녀' 설정 그대로
할머니·딸·손녀 여자 3대 이야기
주인공들의 자아실현·솔직 연애담 담아

"난 저기 숲이 돼 볼게 /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 오르며 날 바라볼래 / 나의 작은 마음 한구석이어도 돼"
배우 정지소가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가수 최유리의 '숲'을 노래하자 꾸밈없는 목소리가 무대를 꽉 채웠다.
마치 꿈이 가득한 20대 오두리처럼, 그리고 여러 사연을 담은 70세의 오말순처럼.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 스포츠포드호텔에서 열린 KBS 새 수목드라마 '수상한 그녀'의 제작발표회는 마치 가수의 쇼케이스처럼 생생한 라이브 무대로 시작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드라마 원작은 2014년 개봉한 동명 영화다. 당시 나문희, 심은경이 출연했고 누적 관객 수 865만명을 기록했다.
드라마 제작진은 일찍 남편을 잃고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식을 키운 70세 할머니 오말순이 우연한 계기로 20대 오두리가 되어 가수에 도전한다는 기본적인 이야기와 설정을 그대로 살렸다.
대신 새로운 캐릭터를 더하고, 2024년에 맞게 세부적인 설정을 손봤다.

원작에서는 오말순에게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있지만, 드라마에서는 딸과 사위, 손녀딸이 등장하는 식이다.
박용순 PD는 "할머니와 딸, 손녀까지 여자 3대의 이야기로 시작했다"며 "2024년, 요즘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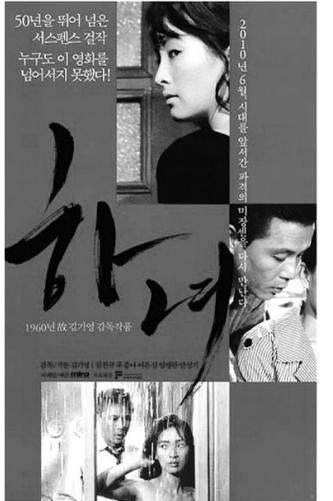
2014년 개봉됐던 원작 영화 '수상한 그녀'

생각에 (원작 속) 가수 오디션을 걸그룹 도전기로 바꿨고, 오말순과 오두리의 자아실현, 솔직한 연애담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화를 재미있게 본 시청자도, 보지 않은 시청자도 즐길 수 있는 여러 요소를 넣었다"며 "영화와 같은 결말이 될지는 방송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원작 영화 속 배우들의 열연이 화제가 됐던 만큼, 드라마 출연진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는 질문도 쏟아졌다.
오말순 역의 김혜숙은 "너무 잘 알려진 영화라 모두 부담을 가진 것"이라며 "영화와는 다른 전제가 있어 시청자들이 '수상한 그녀'의 또 다른 볼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 나이 또래의 모든 사람이 가질 꿈을 오두리가 대신해준다"며 "드라마를 보면서 각자 못 이룬 꿈, 이룰 수 없는 꿈을 대리만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두리 역을 맡은 정지소도 "긴장도, 부담도 많이 됐다"면서도 "차별성을 두기보다는 드라마의 즐거리에 집중해 오두리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에서 오말순 손자를 연기했던 진영은 이번 드라마에서 오두리 상대역을 맡는다.
그는 "원작 속 이진숙 선배님의 역할을 하게 됐다"며 "내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기에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영희와 인교준은 드라마에서 새롭게 추가된 역할인 오말순의 딸 반지숙, 사위 최민석으로 등장한다.
18일 첫 방송. /연합뉴스

'하녀' 등 한국 영화 4편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국가유산청, 등록 예고...근현대 사회상 반영

1950~1960년대 한국 사회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영화 4편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영상자료원이 소장한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등 4편을 각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1960년 영화 '하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에 제작된 '낙동강'은 대학 졸업 후 낙동강 유역으로 귀향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을 계몽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렸다.
배우로도 활동한 전창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1950년 8~9월에 벌어진 낙동강 전투 장면을 통해 당시 전쟁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1958년 개봉한 김소동 감독의 영화 '돈'은 순박한 농사꾼인 주인공을 통해 농촌 고리대, 사기꾼 성행 등 당대의 농촌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낸 작품이다.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의 열악한 농촌 현실을 사실적이면서도 비극적으로 묘사한 한국 사실주의(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힌다.
중산층 가족과 신분 상승을 꿈꾸는 하녀의 이야기를 다룬 김기영 감독의 '하녀' (1960)는 인간의 욕망과 억압, 공포와 불안 등 당대 한국 사회의 긴장과 모순을 그려낸 작품이다.
김기영 감독 특유의 스타일을 보여주며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여겨진다.
1961년 개봉한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은 특수 렌즈로 찍은 촬영면을 넓은 화면에 생생한 색감과 함께 구현한 한국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콥 영화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영화 산업의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며 1960년대 최고의 흥행작으로서 해외 영화계에도 수출된 바 있다.
한국 영화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건 처음이 아니다.
현재 '청춘의 십자로' (1934), '미몽' (1936), '자유만세' (1946), '검사와 여선생' (1948), '마음의 고향' (1949), '피아골' (1955), '자유부인' (1956), '시집가는 날' (1956) 등 8편의 영화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4편의 영화는 근현대기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미래 세대에 한국 영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등록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로제 솔로 1집, 글로벌 돌풍

영 싱글·앨범 차트 모두 진입...싱글 '아파트' 4위·'톡식...' 72위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사진)가 첫 솔로 정규앨범 '로지' (rosie)와 그 수록곡으로 영국 오피셜 싱글·앨범 차트 모두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앨범의 선공개곡 '아파트' (APT.)는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전주보다 한 계단 하락한 4위로 8주 연속 진입하며 흥행을 이어갔다.
'아파트'는 이 차트에 4위로 처음 이름을 올린 이래 2위, 이후 5주 연속 3위, 이번 주 4위를 기록하는 등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앨범의 타이틀곡 '톡식 킬 디 엔드' (toxic till the end)도 같은 차트에서 72위로 이번 주 처음 진입했다. 로제는 이로써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한 주에 2곡이나 올랐다.
이들 노래가 실린 첫 정규앨범 '로지'는 이번 주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 4위로 데뷔했다. '로지'는 로제가 20대를 보내며 경험한 이야기를 녹여낸 앨범이다. /연합뉴스

아이유 '러브 윈스 올'

올해 멜론서 '좋아요' 최다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올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노래는 아이유의 발라드 '러브 윈스 올'로 나타났다.
멜론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집계 결과 '러브 윈스 올'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고, 실제 감상자 수 역시 최다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드래곤의 신곡 '파워'는 최단기간 '좋아요' 10만을 기록해 여전한 영향력을 드러냈다. 올해 멜론의 '톱 100' 차트 10위권에 가장 오래 머문 곡은 에스파의 히트곡 '슈퍼노바'였다.
올해 나온 음반 가운데 총 46개의 앨범이 발매 24시간 이내에 100만 스트리밍을 달성해 '밀리언스 앨범'에 올랐고, 111명의 아티스트가 누적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해 '빌리언스 클럽'에 입성했다. 이 가운데 임영웅은 누적 스트리밍 수 100억 이상을 기록해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최고 등급인 '다이아' 배지를 받은 두 번째 아티스트가 됐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